

재발한 위암 환자의 오심 구토에 독활지황탕가미를 처방한 1례

정성국 · 송정모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A Case of Recurrent Gastric Cancer Patient Treated with Dokhwajjihwang-tnggami for Nausea and Vomitting - A Gastric Cancer Patient's Case

Seong-Kook Jeong, Jeong-Mo So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Woosuk Univ. Medical Cent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recurrent gastric cancer patient.

Methods

Nausea and vomiting of recurrent gastric cancer patient was diagnosed Soyangin Emheooyol Pattern based on their Nature & Emotion, physical characteristics, symptoms. He was medicated dokhwajjihwang-tanggami.

Results and Conclusions

Nausea and vomiting of recurrent gastric cancer patient who was treated with Dokhwajjihwang-tanggami showed improvement in nausea vomiting appetite loss and general condition. This case study describe the effectiveness on Nausea and vomiting of Recurrent Gastric Cancer Patient by using Dokhwajjihwang-tanggami.

Key Words: Soyangin, Recurrent Gastric Cancer, Dokhwajjihwang-tanggami, Nausea and vomitting.

Received September 12, 2013 Revised September 12, 2013 Accepted November 02, 2013

Corresponding Author Jung-Mo Song

Dept. of sasng Constitutional medicine, Woosuk Univ. medical ceter, 2-5,

Junghwasan-dong,, jeonju, jeonbuk, 560-252 Republic of Korea

Tel: +82-63-220-8600 Fax: +82-63-220-8400 E-mail: soo-dang@hanmail.net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신생물 또는 악성 종양을 총칭하는 용어인 암은 조직의 정상적인 성장과는 독립적으로 자라는 인체에 필요없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내에서 급속도로 자라나 주위의 정사조직에 침윤되어 그 조직을 파괴하고 다른 조직에 전이 되는 치명적 질병이다.

그 중 위암은 국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며 조기위암 발견율의 증가 광범위 림프절 포함한 치유적 절제 빈도의 증가 등으로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재발과 전이된 경우는 여전히 예후가 불량하다².

한의학에서는 『黃帝內經 靈樞』 「邪氣臟腑病形編」, 『金匱要略』, 『丹溪心法』, 『醫宗金監』, 『景岳全書』 등에서 反胃 胃脘痛 心下痞膈證 등의 辨證이 胃癌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왔으며 病機病因으로 氣滯 血瘀 食積 列缺 脾胃虛寒 痰濕凝聚 등으로 귀납되고 있다. 치료법은 변증에 따라 扶正 倍本 活血化瘀 軟堅散結 火痰祛濕 清熱解毒 疏肝理氣 通經活絡 以毒功毒法이 제시되고 있다³.

『東醫壽世保元』⁴에서는 少陰人 藏結, 少陽人 吐血 浮腫, 太陰人 肝燥熱證, 太陽人 反胃證 등이 유사하나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삶의 질평가는 Hans 등⁵과 이 등⁶이 EORTC QLQ-36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사상처방만으로 위암환자를 관리한 예는 김 등⁷이 淸心蓮子湯을 활용한 레와 서 등⁸이 太陰人 四象方으로 설사와 복통을 관리한 보고가 있다.

본 증례에서는 복강 내 전이 재발한 위전절제한 위암환자를 사상의학적 변증과 치료를 통하여 少陽人 獨活地黃湯을 처방하여 식욕 부진 오심 구토증상에 호전을 보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證例

1. 환자: 김○○ / M 61

2. 주소증

- 1) 구역 구토
- 2) 식욕 부진
- 3) 설사

3. 발병일: 2013년 2월경 재발

4. 진단명: Gastric Cancer

5. 입원기간: 2013.05.01-2013.05.13

6. 과거력

- 1) 2011년 6월 1일 위암 위절제술
- 2) 2013년 2월 - 현재 1-4차 항암치료시행

7. 가족력

별무

8. 현병력

상기 61세 남환은 2011년 6월 1일경 위암으로 위절제술 받으신 분으로 2013년 2월경 위암 재발하시어 현재까지 4차 항암치료 시행 중이신 분으로 구역 구토 설사증상 심해지어 본원 사상체질과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원치료하였다.

9. 체질소견

1) 체형기상

상기 환자는 상기 주소증으로 인하여 체중이 감소하여 신장 170cm 체중 50kg의 마른체형이다. 현 주소증 발병 전에도 비교적 마른 체형 유지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어깨 및 흉부는 비교적 넓으며 골반은 왜소한 胸實足輕의 少陽人 특징을 보인다.



Figure 1. Anterior and lateral view of patient

2) 성질재간

예민하며 날카로운 성격을 보이며 급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보인다.

3) 용모사기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보이며 턱이 얇고 광대가 비교적 발달한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가진다. 눈은 날카롭고 콧대는 비교적 높은편이다 (Figure 1).

4) 소증

- (1) 汗: 거의 흘리지 않으며 적은 편. 여름에도 주변 사람보다 적게 흘리는편.
- (2) 大便: 하루 2차례이상 설사 경향으로 봄. 입원시 식사를 못하며 대변을 못봄.
- (3) 小便: 정상. 1일 6-7회
- (4) 睡眠: 1일 6-7시간 수면질은 비교적 양호
- (5) 食慾消化: 평소 정상인의 1/3정도 먹으며 소화력이 떨어졌있음. 입원시 2일간 적혀 식사하지 못했음.

5) TS-QSCD: 少陽人

이상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소증 임상조건을 종합하여 사상체질의학과 전문가가 少陽人으로 진단하였다.

III. 治療 및 經過

1. 治療방법

1) 침치료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으로 stainless steel needle(0.3mm × 40mm)의 毫針을 사용하였으며 선혈은 中腕, 下腕, 兩側 天樞, 足三理, 內關, 合谷, 太衝, 太白을 택하여 1일 1회 20분간 留針하였다.

2) 약물치료

裏熱病의 변주에서 접근하여 少陽人 獨活地黃

Table 1. Composition of Dokhwajihwang-tanggami

Herb	Scientific name	dose(g)
熟地黄	Rshmanniae Radix Preparat	16
山茱萸	Corni Fructus	8
白茯苓	Poria	6
澤瀉	Alismatis Rhizoma	6
獨活	Angrlicae Pubescentis Radix	4
牡丹皮	Moutan Cortex	4
防風	Saposhnikovia Radix	4
枸杞子	Lycium Chinense Miller	4
麥芽	Hordeum vulgare Linné	4

Table 2. Grade of Symptom

	13.05.01	13.05.05	13.05.09	13.05.13	13.05.21
Nausea	+++	++	+	-	-
Appetite loss	+++	++	+	±	±
Fatigue	+++	+++	++	+	++

(+++ : severe ++:moderate +:mild ±:trace -:elimination)

湯에 麥牙 枸杞子를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하루에 2첩을 120cc씩 세 차례에 나누어 매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Table 1).

3) 부항치료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肩背部에 乾式留管을 1일 1회 시행하였다.

4) 뜸치료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中脘 및 關元穴에 각 1장씩 간접구를 1일 1회 시행하였다.

2. 경과 (Table 2)

1) 2013.05.01 : 입원시 극심한 오심 및 구역감 호소하시었으며 입원 후 저녁 식사시 죽으로 소량 섭취 후 곧바로 구역감 동반하여 구토 하였다. 기력저하 극심하였으며 구강으로 영양섭취하지 못하시어 수액요법 시행하였다.

2) 2013.05.05 : 하루 세 차례 죽을 비롯한 유동식으로 각 100cc-130cc 정도 섭취하기 시작하였으며 환자

분 여전히 오심 및 구역감 식욕부진 호소하시었으나 구토하지는 않으셨다.

3) 2013.05.09 : 식사량 정상 수준으로 회복 되었으며 더 이상 오심감 및 구역감 호소하지 않으셨으나 식후 곧바로 변의를 느끼며 대변이 설사 양상을 띄었다.

4) 2013.05.13 : 오심 구역 구토 증상 보이지 않으시며 기력저하 역시 상당부분 회복되시어 퇴원하시었다. 변은 여전히 1일 2-3회 설사양상으로 보시었다.

5) 2013.05.21 : 1차 퇴원후 추가 항암 치료 시행 받으셨으나 오심 구역 증상은 보이지 않으시며 단순 현기 및 어지럼증 호소하시어 재입원 하시었다. 음식물 섭취는 정상적이나 설사 증상은 여전히 보이시었다.

IV. 考察 및 結論

암은 조절되지 않는 세포성장과 조직 침범 및 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인

세포의 조절되지 않는 증식은 양성종양이나 신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자. 암은 악성종양과 동의어이며 상피조직암은 암종, 비상피 조직암은 육종이라고 한다. 암 치료의 목적은 암을 소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면 완화적 치료, 생명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서양의학에서 암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생물학적치료(면역요법과 유전자 요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은 종종 복합적으로 사용 되어진다⁸.

위암의 증상으로는 상복부 동통 및 불쾌감이 가장 흔하며 위암이 진단 될 때 가진 증상으로 약 85%에서 관찰될 수 있다. 동통의 형태는 양성 위궤양과 비슷할 수도 있고 음식물이나 제산제로 완화 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복통은 종양이 위벽을 뚫고 밖까지 침윤되었음을 암시하고 분문부에 종양이 있을 때는 胸骨下나 심장 앞 동통이 있을 수 있다. 위암이 커져서 위의 운동이 장애를 받거나 음식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방해를 받으면 소화불량 식후 팽만감 트림 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는 위암이 진행된 후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다⁹. 폐쇄증상은 종양이 위체부 또는 저부보다 유문부근처에 위치할때 빨리 나타난다. 식욕감퇴와 체중 감소 등으로 몸이 허약해지고 위암종이 혈에서 혈액이 소실되면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토혈을 하거나 위암부가 복강내로 터져 복막염을 일으키기도 한다⁸.

수술은 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오늘날 암환자의 40%가 수술에 의해 완치되지만 나머지 60%의 고형 종양을 가진 환자는 제거할 수 없는 전이 병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 단독으로 완치되지 않더라도 종양의 제거는 종양의 국소적 절제 장기기능의 보존 이후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종양의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항암요법과 병행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는 대개 한부분에 시행되지만 피로,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등과 같은 전신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⁸.

한의학에서는 위암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우선 『黃帝內經 靈樞』 「四氣臟腑病形篇」에서 말하기를 膈咽이 불통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사기가 胃脘에 있어 복이 脹滿하고 胃脘에서 心에 이르는 부위가 아프고 脈은 緊澁한데 그 병은 難治라 하였다. 또 주단계는 反胃라는 병이 七情과 六淫으로 말미암아 火熱이 上炎하고 氣가 상승하고 하강하지 않음으로 津液이 고루 분포하지 못하여 혈액이 耗渴되고 胃脘이 乾結하고 大便少하고 上下不通하는 것이라 하였다. 『醫宗金監』에는 胃·小腸·大腸 三腑의 熱이 結하여 不散한 즉 津液이 말라 분문 유문 혼문의 삼문이 乾結하게 되는데 분문이 건조하면 水穀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져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유문이 乾枯해지면 腐熟된 음식물을 방출하는 길이 좁아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를 反胃라 하고 이 證이 오래되면 백문도 자연히 막혀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하여 위암이 연하곤란하고 대변 건조하는 병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景岳全書』에서는 膈은 胸膈과 胃口의 사이에 痰이나 食積阻滯하여 不通하면 음식물이 들어가도 아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토하고 음식이 들어가면 토하게 되는데 反胃라 한다고 하여 위암의 병인이 단순히 火上炎이나 氣結뿐만이 아니라 痰濕, 血瘀, 食積과도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³.

『東醫壽世保元』에서 암의 병증이나 암을 치료한 정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少陰人の 경우 “少陰人 心下結硬 有此證者 目睹四五人 或 半年 或 一年 鍼灸醫藥 無不周之而 槁槁 無回生之聖 此 卽 藏結病而 少陰人 病也”¹⁾ 라고 하여 간경화나 간암에 대한 증례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암으로 볼 수는 없지만 少陽人 吐血 浮腫, 太陰人 肝燥熱證 등의 난치병의 예를 보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性情 逆動的의 偏急을 주요원인으로 보았으며 豫防이나 用藥뿐 아니라

1)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少陰人 心下結硬 有此證者 目睹四五人 或 半年 或 一年 鍼灸醫藥 無不周之而 槁槁 無回生之聖 此 卽 藏結病而 少陰人 病也”

그 치료의 기초는 性情 偏急의 警戒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⁷.

본 증례의 환자는 위암으로 인하여 위 전 절제술 시행 받으신 후 위암 재발하여 항암치료 시행중인 환자 분으로 위절제와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식욕부진 오심 구역 피로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성질재간 용모사기 체형기상 素證등을 종합하여 少陽人으로 판단하였으며 여러 증을 종합하여 陰虛 午熱證의 번주로 보아 少陽人 獨活地黃湯加味를 투여하였으며 여러 증상이 개선되었다.

少陽人 獨活地黃湯은 六味地黃湯에서 유래된 처방으로 여기서 山藥을 去하고 獨活, 防風을 加한 것이다. 主治는 食滯痞滿, 中風, 嘔吐, 勞瘵, 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 恒有滯症痞滿, 間有腹痛, 腰痛, 口眼喎斜이며, 이 처방의 경우 少陽人의 脾腎陰虛가 장기화되어 上下焦의 濕으로 清陽의 不升으로 나타나는 제반병증에 쓸 수 있다고 사료된다¹⁰.

본 증례의 환자는 처음 입원시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오심 구역 심하여 전혀 식사를 못하던 상태였는데 少陽人 獨活地黃湯을 투여한 이후 점차 증상 호전되시어 퇴원 시에는 오심증상 거의 보이지 않고 식사량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시었다, 퇴원 후 추가 항암치료 시행 후에도 다시 오심 구역증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로도 역시 호전되었음을 보이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에 사상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관찰기간이 짧고 추가 추적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상적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미흡함이 있으며 위암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으며 추가적 추적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심신의학적 관점에서 성정의 편급을 관리 할 수 있었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에 사상의학적 변증을 통한 처방으로 효과가 있었

기에 이에 보고한다.

V. 參考文獻

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ncology. 5th, Seoul: Seoul Uni Press 2009:1-7, 206. (Korean)
2. Seo YK, Kim EH, Kim DL, Ko BH, Cheon SH, Choi WC, et al. A Case of Stomach Cancer Patient with Peritoneum and Colon Metastasis Treated with Taeumjowi-tang for Abdominal Pain and Diarrhea. J Sasang Consitut Med. 2007;19(3):270-276. (Korean)
3. Hwang CY. Bibliographic Study on the Therapy of Gastric Cancerby Intergrated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J of Wonkwang Korean Med 1997;7(1): 10-18. (Korean)
4. Lee JM. DongyiSuseBowon. 2nd, Seoul: Yeognag Pub 2002 (Korean)
5. Hans UZ, Kathrin Z, Jurgen Z, Joachim MM. Quality of life after sugical treatment of gastriccarcinoma. Eur J Sug. 1998;164:119-125.
6. Lee HM, Sin YD, Yoon C, Joo HZ. A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Following after Curative Surgery for Gastric Cancer. J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2001; 60(4):405-412. (Korean)
7. Kim HW, Seo W, Song JM. A case about the patient prescribed Taeumin Chongsim Yonja Tang, suffered abdominal pain with terminal gastric cancer. J Sasang Consitut Med. 2000;12(2):195-200. (Korean)
8. Fauci, Anthony, Mcgraw-Hil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MIP 2010: 577-584, 618-620, 588-701.
9. Choi SG, Seo WH, Lim HJ, Oh SJ, Kim SK, Moon IY, et al. Case Reports : The Clinical Observation on 11 Cases of patient with terminal stage of Gastric cancer. J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2002;19(4):208-224. (Korean)
10. Jang HS, Kim YH, Kim SH, Lee JH, Lee EJ, Song

IB, et al. A Case Study of a Somatoform Disorder Patient Diagnosed with Soyangin Symptomatic Pattern of 'in-Deficiency-Midday-Fever'.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119-128. (Korean)